

대학생의 사이버범죄피해가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긴장이론의 검증과 그 성별차이

이정환* · 이성식**

초 록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피해의 사이버범죄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을 통하여 검증함에 있어, 그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첫째, 사이버범죄피해의 사이버범죄가해에 대한 영향력에 성별차이가 있는지, 둘째, 사이버범죄피해가 남녀에 따라 서로 다른 부정적 감정의 매개과정으로 사이버범죄가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셋째, 사이버범죄피해가 여러 다른 조절변인들로 낮은 자기통제력, 비행친구유무, 도덕적 신념과의 상호작용으로 사이버범죄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성별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서울 소재 대학생 763명을 조사한 결과, 사이버범죄피해가 사이버범죄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차이가 없었고, 부모긴장, 학업긴장, 친구긴장은 남녀에 따라 서로 다른 부정적 감정으로 화와 우울을 통해 사이버범죄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사이버범죄피해 경험은 부정적 감정의 매개없이 남녀 모두에서 사이버범죄가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사이버범죄피해와 조절변인들의 사이버범죄가해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에서 남성의 경우는 도덕적 신념이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지만, 여성은 낮은 자기통제력 및 비행친구유무가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 남녀가 차이가 있음을 제시했다.

주제어 : 사이버범죄가해, 사이버범죄피해, 일반긴장이론, 성별차이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연구실 조사분석팀 주임연구원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교신저자, lss824@ssu.ac.kr

I. 서 론

범죄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이다. 사실 대부분의 범죄피해와 가해는 서로 중첩되어 있으며, 범죄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는 범죄피해가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 관계가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Lauritsen, Sampson Laub, 1991; 기광도, 2004; 정원철, 아영아, 2006; 박순진, 2009). 사이버공간에서 그 관계는 어떠한가? 인터넷사용의 증가로 사이버범죄가 주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이버범죄피해의 가해에 대한 영향에 대한 국내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피해 경험이 사이버범죄가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일반긴장이론(Agnew, 1992)에 근거하여 그것을 검증하려고 한다.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일상에서의 긴장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그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는데, 범죄피해는 그러한 긴장의 하나로 과연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여 범죄가해로 결과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가 무엇보다도 주목하는 점은 사이버범죄피해가 사이버범죄가해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그것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기존 논의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성역할사회화의 차이로 긴장시 부정적 감정의 반응이 다르고 또 그것을 외부로 표출함에 있어서도 달라 남성은 범죄의 가능성이 높지만, 여성의 경우 범죄의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Broidy & Agnew, 1997; Broidy, 2001).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의 가해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성별차이를 다룸에 있어 과연 사이버공간에서도 현실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남녀차이가 존재할지 아니면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과 비대면의 공간에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긴장과 부정적 감정을 표출함으로 현실과 달리 남녀간에 차이가 없을지를 논의하고 그것을 살펴볼 것이다. 더욱이 일반긴장이론에서는 긴장과 범죄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의 매개작용과 아울러 통합이론으로서 다른 이론에서의 여러 조건이 충족될 때 범죄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나, 차별접촉, 사회유대요인들을 조건적 조절변인으로 제시하고 사이버범죄피해와 그러한 조절변인들의 사이버범죄가해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 감정의 매개와 여러 조건적 조절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의 영향에 있어 과연 성별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범죄피해가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긴장이론을 통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하여 살펴보며, 남녀에 따라 그 영향력과 그 매개변인 및 조절변인의 작용이 어떻게 다를지에 주목하고, 그것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와 검증을 통해 알아보고 그 결과가 갖는 함의를 논의해 보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논의

1. 일반긴장이론

Merton(1938)의 아노미이론에 기반한 기존 전통긴장이론은 하층의 범죄를 설명하고자 했고 부의 성공이라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구조적 제약에서 오는 긴장을 범죄의 원인으로 다뤘다. 하지만 전통긴장이론이 경험적으로 지지를 못받게 되자 이후 연구들은 긴장을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하던 방식에서 긴장의 개념을 계층과 무관하게 일상에서 경험하는 긴장으로 확대하고 그것을 범죄의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Agnew(1992)는 그 대표적 논의로 일반긴장이론을 제시하면서 긴장을 세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첫째, 목표달성의 실패는 열망과 기대의 격차, 단기적 목표와 실제 성취의 격차, 부정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긴장이며, 둘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은 학대 및 괴롭힘, 범죄피해 등에 직면하며 발생하는 긴장, 셋째, 긍정적 자극의 소멸은 친구나 가족의 사망 및 이별, 질병, 이혼 등으로 인하여 겪는 긴장으로, 이러한 세 차원의 긴장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일반긴장이론은 긴장과 범죄의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을 범죄의 매개요인으로 제시하여, 일상생활에서 긴장이 발생하면, 화와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후 경험연구에서는 예를 들어 청소년대상의 연구에서는 가정, 학교, 친구관계, 지역사회 등 여러 일상에서의 긴장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그 부정적 감정이 범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Agnew & White, 1992; Piquero & Sealock, 2000; Agnew, 2001; Agnew, 2006).

그런데 일반긴장이론은 대표적인 통합이론으로서 여러 다른 이론들을 통합하려고 했으며, 긴장이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범죄를 저지른다는 주장을 했다. 여기서 조건적 조절변인으로 사용되는 요인들로는 일반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의 낮은 자기통제력이나, 차별접촉이론(Sutherland, 1947)의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의 부모애착, 학업관여, 신념 등의 사회유대요인이 대표적이다(Agnew, 2006). 즉 일상긴장으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낮은 자기통제력 성향을 가지거나, 비행친구와 사귀거나, 낮은 사회유대를 가질 때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그 주장은 지지되어 왔다(Agnew, 1992; Mazerolle & Maahs, 2000; Agnew, 2006).

2. 사이버범죄피해가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긴장이론의 논의들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피해가 가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이 되는지를 검증함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에서 범죄피해를 긴장의 세 차원의 하나인 부정적 자극 발생의 예로 다뤘듯이 범죄피해자가 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의 그 주요 설명의 근거로 다루기로 한다. 즉 범죄피해를 당할수록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Agnew(2001)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긴장 중에서도 특별히 범죄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긴장의 네 가지 특징을 구체화하였는데, 첫째로, 부당하고 고의적이며,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하여 분노를 일으키는 긴장, 둘째로, 최근에 발생하여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며 집중화된 긴장, 셋째로, 낮은 사회통제로 인하여 발생한 긴장, 넷째로, 불법적인 대응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긴장이 그것이다. 범죄피해로 인한 긴장은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긴장이라 할 수 있으며, 누군가에 의해서 직접적이고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발생하며, 그 영향이 지속적이며, 낮은 사회통제의 산물이자, 그 상대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긴장이 해소되는 성격을 갖는다.

범죄피해의 가해에 대한 영향은 그동안 일반긴장이론의 연구에서 제기되어 검증되었고(Agnew, 2002; Baron, 2004; Hay & Evans, 2006; Moon, Blurton & Mucklusky,

2008), 그러한 논의는 비록 적었지만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되어 Hinduja와 Patchin (2007)은 사이버상의 괴롭힘 연구에서 범죄피해자는 보복의 동기로 가해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이후에서도 제시하면서(Patchin & Hinduja, 2011), 그 주장을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하였다. 국내에서도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을 주제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지만(김예성, 김광혁, 2008; 이성식, 전신현, 2011; 조윤오, 2012), 사이버범죄피해가 사이버범죄가해로 연결되는지의 연구는 아직 없다. 다만 조윤오(2013)는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를 경험하면 오프라인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고, 이성식과 전신현(2011)은 오프라인 현실에 피해를 당하게 될 때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상대에게 가해를 하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와 가해의 관계를 일반긴장이론에서 접근한 국내연구는 없지만 일상긴장이 사이버공간의 범죄에 잘 적용된다는 논의가 기존 연구들에서 보여지듯이(Patchin & Hinduja, 2011; 이성식, 전신현, 2012), 사이버공간에서는 범죄피해시 부정적 감정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용이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현실에서보다 더욱 쉽게 가해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즉 범죄피해와 가해의 관계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그 관계가 강할 수 있는데, 사이버공간은 익명성, 비대면성, 즉시성 등의 특징으로 오프라인에서보다도 더욱 손쉽게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범죄가해 행위를 저지르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이버범죄피해와 부정적 감정이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성별차이

범죄피해를 포함하여 일상긴장의 경험이 범죄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관계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성역할사회화의 차이로 일상긴장을 경험하고 부정적 감정을 느끼더라도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낮다. 그러한 남녀의 차이는 긴장으로부터의 부정적 감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 남성은 긴장의 원인을 외부에 귀인하고 화와 같은 공격적 감정을 보이고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지만, 여성은 긴장을 내면화하여 우울해하거나 그 원인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자책하는 경향이 있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Broidy & Agnew, 1997; Broidy, 2001; Piquero & Sealock, 2004). 이처럼 남성은

화, 여성은 우울이라는 서로 다른 감정의 반응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범죄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된다. 물론 남녀 모두에서 긴장이 발생하면 비행은 저지른다는 연구결과가 있고(Mazerolle, 1998), 범죄피해의 경우도 남녀 차이없이 가해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지만(Cullen, Unnever, Hartman, Turner & Agnew, 2008), 범죄피해가 가해에 작용하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Manasse & Ganem, 2009).

그러나 오프라인과 다르게 사이버공간은 익명성, 비대면성 등의 특성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기 용이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부정적 감정을 내면화하지 않고 그것을 해소하고 외부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성식(2004)은 오프라인 현실비행의 경우에는 남성이 긴장으로, 그리고 우울보다는 화로 인해 비행을 더 하게 되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남성이외에 여성도 긴장으로 비행을 하며, 여성은 우울을 경험해도 사이버비행으로 표출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범죄피해의 가해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이성식과 전신현(2011)은 오프라인 현실에서는 집단괴롭힘 피해를 당할 시 남성은 직접적으로 가해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은 낮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남녀가 서로 다른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여도 모두 피해시 가해를 할 수 있어 남녀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제시했다.

4. 사이버범죄피해와 조절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에서의 성별차이

일반긴장이론의 통합적 논의대로라면 범죄피해와 긴장으로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않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에 한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주요 조절변인으로는 낮은 자기통제력,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 사회유대요인이 대표적이며 자기통제력이 낮을 때, 비행친구와 접촉할 때, 사회유대가 낮을 때 범죄피해가 범죄가해에 영향을 줄 것인데, 이들의 작용에서도 성별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성별에 관계없이 범죄에 있어서 주요 원인이 되며, 실제로 최근까지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주요 원인을 밝힌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Higgins & Tewksbury, 2006; Daigle, Cullen & Wright, 2007; Shekarkhar & Gibson, 2011). 하지만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남정보다는 여성에게서 그 영향력이 더 크고(Burton, Cullen, Evans, Alarid & Dunaway, 1998; 이성식, 2014), 여성보다는 남

성에게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Tibbetts & Herz, 1996)도 있다. 그러한 독립 효과이외에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서의 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과의 상호작용은 그다지 많은 연구가 없지만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heung & Cheung, 2010).

한편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의 영향력도 많은 연구에서 그 차이가 일관되지 않게 제시되고 있는데, 남녀 모두에게 유사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연구와(Alarid, Burton & Cullen, 2000; Daigle et al., 2007),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연구(Smith & Paternoster, 1987; Piquero, Gover, Macdonald & Piquero, 2005),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연구(Heimer, 1996) 등이 제시되고 있다. Morash와 Moon(2007)은 부모와의 긴장의 영향력에 있어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조건적 효과를 남녀별로 살펴보았는데, 그 영향력이 유사하지만 남성의 경우보다는 여성의 경우에서 다소 더 컸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그와 같은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제시되고 있다(Botchkovar & Hughes, 2010).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유대요인들로 주로 부모와의 애착이나 학업관여의 영향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을 가졌다(Alarid et al., 2000). 하지만 사이버범죄의 경우는 현실에서의 부모와의 유대나 학업관여 요인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사회유대요인들보다 또 다른 요인인 개인의 도덕적 신념에 주목하기로 하는데 그 영향력에 대한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는 일부 연구(Simons, Martin & Stephen, 1980)이외에 많지는 않지만, Jang과 Johnson(2005)은 왜 여성이 긴장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가능성이 낮은지를 설명함에 있어 종교성과 같은 도덕적 신념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것이 남성에서보다 더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처럼 그 독립적 영향력과 조절변인으로서 상호작용 영향력에서 남녀에 따라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본 연구주제와 같이 범죄피해의 가해에의 영향에 있어 조건적 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몇몇 있지만(Hay & Evans, 2006; Aceves & Cookston, 2007), 그것의 성별차이 연구는 거의 없었다. 여기서는 사이버범죄피해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사이버범죄가해를 설명함에 있어 과연 그것과 낮은 자기통제력,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 그리고 도덕적 신념과의 상호작용효과에 있어서 성별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II. 연구문제와 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사이버범죄피해가 사이버범죄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긴장이론에 기초하여 검증함에 있어 성별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를지에 주목한다. 남성은 여성보다 범죄피해와 같은 긴장을 범죄로 표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우는 익명성, 비대면성 등의 특성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기 용이하기 때문에 여성도 사이버범죄가해로 긴장을 해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과연 그런지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남녀 모두 사이버범죄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범죄가해를 할 것인가?

아울러 일반긴장이론의 논의를 통하여 본다면, 남성과 여성은 사이버범죄피해로 인하여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이버범죄가해행위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의 종류는 성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과연 남성은 사이버범죄피해시 화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여성은 화보다는 우울을 더 경험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과연 사이버범죄피해시 남녀는 각각 화와 우울을 매개로 하여 그러한 감정을 해소하려 사이버범죄가해를 저지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문제 2: 남녀는 사이버범죄피해로 서로 다른 부정적 감정(화와 우울)을 경험할 것인가? 그리고 사이버범죄피해는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사이버범죄가해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피해가 사이버범죄가해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조건적 조절변인들과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조절변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 그리고 도덕적 신념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그러한 조절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에 과연 성별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문제 3 : 사이버범죄피해와 낮은 자기통제력,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 도덕적 신념의 사이버범죄가해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피해의 가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반긴장이론을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함에 있어 독립변인으로 사이버범죄피해이외에 통제변인으로 대표적인 긴장요인인 부모긴장, 학업긴장, 친구긴장을 사용하기로 한다. 아울러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과, 계층변인으로 주관적 계층수준을 사용하기로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2013년 7월 기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가 20대이며(99.9%)(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2014), 그러한 점에서 사이버범죄의 피해 및 가해를 경험할 확률도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대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4.7%로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대학생 대상의 연구를 위해 2012년 6월 25일부터 당해 연도 7월 9일까지 총 2주간,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는 한강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2개씩의 학교, 총 8개의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100명씩 조사하였다. 총 8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37부를 제외한 763부가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8v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측정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다룰 사이버범죄가해행위는 욕설과 비방, 허위사실 유포, 집단괴롭힘, 협박, 사이버스토킹, 성매매 알선, 성폭력, 음란물 유포, 개인정보도용, 해킹,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유포, 스팸문자 발송, 인터넷사기, 저작권 침해 등 16개에 해당하는 행동의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질문하여 합산하였다. 그런데 그럴 경우 최종 값이 좌편향되어 다중회귀분석에서 OLS방식으로 분석하게 될 때 독립변인들의 예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그값을 로그화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으로 사이버범죄피해는 앞서 종속변인인 사이버범죄가해행위와 마찬가지로 16개에 해당하는 행동의 지난 1년간의 피해경험을 질문하여 합산하였고 일관성을 위해 마찬가지로 그 값을 로그화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다룰 부정적 감정으로 화와 우울을 다룸에 있어, 화는 “지난 일 년간 화가 난다” 1개로 질문하여 5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고, 우울은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개발한 한국판 CES-D 척도를 바탕으로 “지난 일 년간 평소에 우울했다” 등의 20문항을 사용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여 합산하였다(전체 α =.930, 남성 α =.940, 여성 α =.912).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 다룰 낮은 자기통제력 변인은 Grasmick과 동료들(1993)의 연구에 의거하여 충동성, 단순작업선호, 위험추구성, 육체활동성, 이기성, 화기질 등에 두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전체 α =.858, 남성 α =.865, 여성 α =.846), 차별접촉이론의 요인으로서의 비행친구 변인은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 불법 행위를 한 친구가 있다”로 질문하였으며, ‘없다’는 0으로, ‘있다’는 1로 더미화 하였다. 그리고 도덕적 신념은 Hirschi(1969)의 논의를 바탕으로 “발각되지 않으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등의 총 다섯 문항으로 질문하고 역으로 부호화하였다(전체 α =.898, 남성 α =.907, 여성 α =.882).

본 연구의 통제변인으로 부모긴장은 “나는 부모님과 갈등이 심하다” 등 세 문항을(전체 α =.878, 남성 α =.885, 여성 α =.866), 학업긴장은 “나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등 세 문항을(전체 α =.766, 남성 α =.799, 여성 α =.710), 친구긴장은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등 세 문항으로 질문하고(전체 α =.885, 남성 α =.889, 여성 α =.879),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써 연령의 경우 태어난 년도를 질문하여 만 연령으로 변환하였고, 계층변인의 경우 가구의 주관적 경제수준을 다섯 항목에(“하, 하중, 중, 중상, 상”) 응답하도록 하였다.

IV. 분석결과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중 먼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전체 응답자 762명 중 남성은 460명(60.4%), 여성은 302명(39.6%)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18세에서 29세 범위에서 21.96세이었고 남성의 연령이 약간 많았다. 응답자의 주관적 경제수준은 1-5범위에서 평균값이 3.31이었고 남성보다 여성이 약간 높았다.

표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수명	전체		남성		여성		범위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성별							
남성		460 (60.4)					
여성		302 (39.6)					
연령	21.96		22.43		21.25		18-29
주관적가구경제수준	3.31		3.27		3.38		1-5
사이버범죄가해	0.76		0.96		0.48		0-4.62
사이버범죄피해	1.91		2.04		1.70		0-4.62
부모긴장	6.67		6.74		6.57		3-15
학업긴장	6.99		6.98		7.00		3-15
친구긴장	6.20		6.24		6.13		3-15
화	2.33		2.27		2.41		1-5
우울	47.71		47.23		48.44		20-84
낮은자기통제력	33.53		33.59		33.38		12-60
신념	18.79		18.62		19.03		5-25
비행친구							
없음		694 (91.0)		415 (90.2)		278 (92.1)	
있음		69 (9.0)		45 (9.8)		24 (7.9)	

본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종속변인인 로그화한 사이버범죄가해는 0-4.62범위에서 전체의 평균이 0.76이었는데, 남성은 0.96으로 여성 0.48보다 더 높았다. 주 독립변인인 사이버범죄피해의 경우 전체 평균은 1.91이었고 남성은 2.04, 여성은 1.70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경험도 많았다. 통제변인이자 또 다른 긴장요인으로 부모긴장, 학업긴장, 친구긴장을 보면 3-15범위에 부모긴장은 전체의 평균이 6.57, 남성은 6.74, 여성은 6.57으로 남성이 더 높았고, 학업긴장은 전체의 평균이 6.99, 남성은 6.98, 여성은 7.00으로 거의 유사했고, 친구긴장은 전체의 평균이 6.20에서 남성은 6.24, 여성은 6.13으로 남성이 다소 더 높았다. 조절변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수준은 12-60범위에서 전체의 평균이 33.53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은 33.59, 여성은 33.38이었고, 도덕적 신념의 경우 전체 평균이 5-25범위에서 18.79, 남성은 18.62, 여성은 19.03으로 여성이 더 높았다. 비행친구가 있는지의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에서 69명(9.0%)이 비행친구가 있다고 응답했고, 남성은 460명중 45명(9.8%), 여성은 302명중 24명(7.9%)으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2. 사이버범죄피해가 사이버범죄가해에 미치는 영향의 다중회귀분석과 성별차이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로 사이버범죄피해가 사이버범죄가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별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사이버범죄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범죄가해를 $p < .001$ 수준에서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제시했다. 통제변인으로 일상긴장 변인의 영향력은 낮았는데 남성의 경우에서 그러한 긴장요인들의 영향력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는 부모긴장이 $p < .05$ 수준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아울러 주관적 가구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가해를 더 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표 2
사이버범죄피해의 사이버범죄가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사이버범죄가해			
	남성		여성	
	b	β	b	β
연령	-.047	-.077	.011	.020
주관적가구경제수준	-.055	-.031	.182*	.123
부모긴장	-.040	-.066	.080*	.156
학업긴장	-.023	-.037	-.023	-.044
친구긴장	.076	.114	.036	.071
사이버범죄피해	.385***	.496	.289***	.463
R^2	.250		.218	
F	18.679***		10.045***	

* $p < .05$; ** $p < .01$; *** $p < .001$

두 번째 연구문제로 사이버범죄피해가 부정적 감정 화와 우울을 매개로 사이버범죄가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별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1-1과 그림 1-2에 제시되는데, 남성의 경우나 여성의 경우 모두에서 사이버범죄피해가 화와 우울을 매개로 하지 않고 사이버범죄가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일상긴장요인들이 화를 유발하고 그것을 매개로 사이버범죄가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는 일상긴장요인들이 화가 아닌 우울을 유발하는 것으로 차이를 보였지만 우울의 사이버범죄가해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아 남녀별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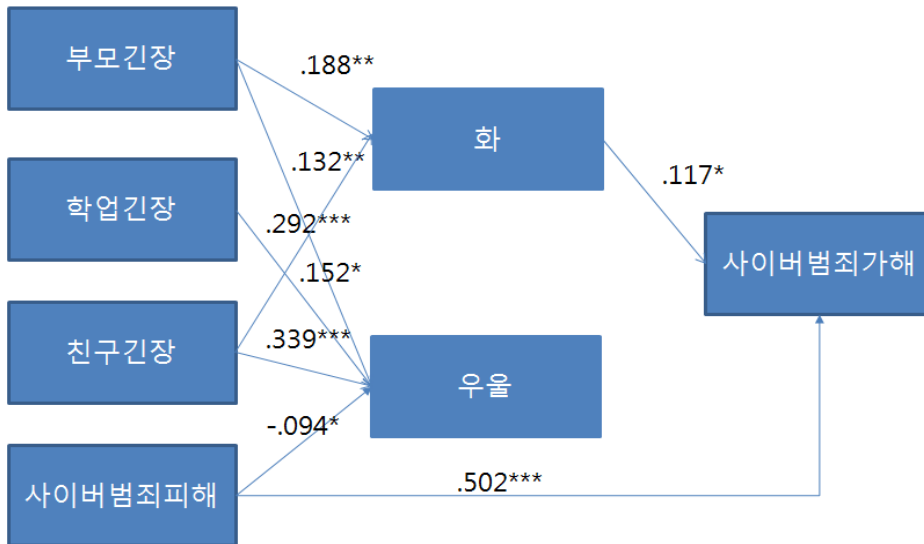


그림 1-1. 사이버범죄피해의 사이버범죄가해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경로분석(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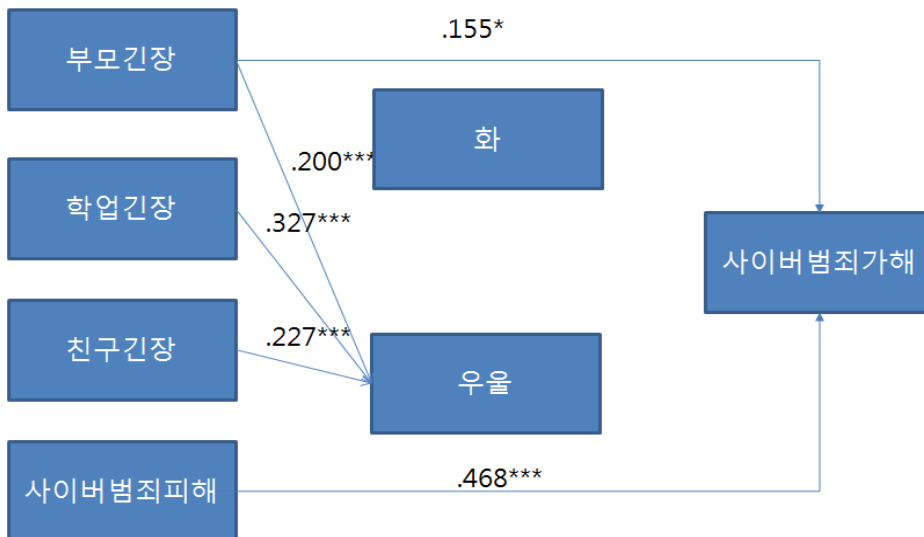


그림 1-2. 사이버범죄피해의 사이버범죄가해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경로분석(여성)

표 3

사이버범죄피해와 조절변인들의 사이버범죄가해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사이버범죄가해											
	남성						여성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연령	-.051	-.082	-.051	-.082	-.036	-.059	.022	.038	.007	.012	.013	.022
주관적가구 경제수준	-.047	-.026	-.048	-.027	-.040	-.023	.155	.103	.150	.101	.170	.114
부모긴장	-.045	-.076	-.043	-.071	-.050	-.084	.064*	.126	.064*	.125	.068	.132
학업긴장	-.047	-.074	-.031	-.048	-.042	-.067	-.042	-.081	-.023	-.044	-.030	-.057
친구긴장	.072	.106	.080	.119	.079	.117	.045	.087	.041	.080	.036	.069
사이버범죄 피해	.373***	.481	.379***	.489	.388***	.500	.283***	.451	.259***	.416	.286***	.457
낮은 자기통제력	.019	.087					.034***	.198				
비행친구 유무			.138	.028					.797**	.188		
신념					-.013	-.035					-.028	-.086
사이버범죄 피해*낮은 자기통제력	.000	.072					.016**	.187				
사이버범죄 피해*비행친 구유무			.007	.074					.303*	.143		
사이버범죄 피해*신념					-.001*	-.121					.001	.008
R^2	.266		.258		.267		.296		.299		.223	
F	14.958***		14.582***		15.228***		11.032***		11.414***		7.601***	

* $p < .05$; ** $p < .01$; *** $p < .001$

세 번째 연구문제로 사이버범죄피해가 조절변인들과 함께 사이버범죄가해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남녀별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된다. 우선 독립효과의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사이버범죄피해는 $p < .001$ 수준에서 가해에 영향을 미쳤지만,

남성의 경우 낮은 자기통제력, 비행친구유무, 도덕적 신념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p < .001$ 수준에서, 비행친구유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독립효과를 나타냈다. 분석결과는 독립효과이외에 조절변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에서도 남녀간에 차이를 나타냈다. 남성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 비행친구유무가 사이버범죄피해에 있어서 사이버범죄피해와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던 반면, 도덕적 신념의 경우 $p < .05$ 수준에서 사이버범죄피해와 부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그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범죄피해와 $p < .01$ 수준에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비행친구 변인이 사이버범죄피해와 $p < .05$ 수준에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도덕적 신념과 사이버범죄피해와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피해가 사이버범죄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긴장이론을 통하여 검증하며, 남녀별로 그 영향과 매개변인 및 조절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예측대로 남녀 모두에서 사이버범죄피해가 사이버범죄가해에 직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현실의 경우와 달리 사이버공간에서는 여성도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범죄가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긴장이론의 논의와는 다르게 사이버범죄피해 경험은 부정적 감정을 통해 매개효과를 보이지는 못했다. 다만 사이버범죄피해가 아닌 다른 일상긴장요인들은 일반긴장이론의 논의대로 부정적 감정을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주로 화, 여성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성별차이를 나타냈다.

일반긴장이론의 통합적 논의대로 살펴본 사이버범죄피해와 조절변인과의 상호작용효과의 경우 남성의 경우 사회통제이론의 도덕적 신념과 사이버범죄피해가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 반면에, 여성의 경우 일반이론의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이버범죄피해가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그리고 차별접촉이론의 비행친구 변인과 사이버범죄피해가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어 남녀별로 차이가 있음을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기존 연구들에서 사이버범죄피해가 아니긴 하지만 일상긴장과 조절

변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다뤘던 몇몇 연구와 일관적인(도덕적 신념의 경우는 예외로) 결과로 보여진다. 이 남녀차이의 결과는 범죄 가능성이 높은 남성의 경우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완충요인의 작용이 중요하고, 여성의 경우 그와 반대로 본래 범죄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범죄를 촉진할 수 있는 촉진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성식, 2014). 또한 여성은 성역할사회화의 차이로 통제와 감시를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행동에 있어서 통제와 구속, 자기통제력 요인이 중요하지만, 남성은 여성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키워지는 면에서 도덕적 신념을 자유롭게 내면화하고 그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교해 다수의 친구를 사귀지는 않지만 소수의 친구들과 깊고 친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중의 비행친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사이버범죄피해가 사이버범죄가해에 직접적인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이버범죄가해에 대한 대책에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었으며, 사이버공간에서는 남녀에 차이없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사이버공간은 적어도 현실과는 달리 남녀에 차이가 없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녀별로는 조절변인의 작용이 달라 남녀별로 서로 다른 대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남성에게는 도덕적 신념의 교육적 윤리적 대책이 보다 중요하며, 여성의 경우는 가정에서의 일관되고 적절한 양육과정을 통하여 내적 성향인 자기통제력을 바르게 형성하는 것이, 그리고 보다 다양하고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비행친구를 사귀었을 때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사이버범죄의 경우에서만 피해와 가해의 관계를 다루었기 때문에 현실의 경우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연구는 그러한 비교를 통해 과연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과 성별차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감정의 매개효과를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이는 화를 비롯한 측정이나 또는 그것이 범죄가해를 야기하는 상황론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방법론상의 문제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의 연령층에서는 어떻게 성별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러한 연구들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기광도 (2004). 범죄 및 피해의 중첩성에 관한 분석. **피해자학연구**, 12(2), 269-305.
- 김예성, 김광혁 (2008). 초등학교 이동의 또래괴롭힘 경험유형에 따른 우울불안, 학교 유대감: 공격성의 차이 및 피해경험을 통한 가해경험 변화. **아동학회지**, 29(4), 213-229.
- 박순진 (2009).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피해-가해 경험의 발전. **형사정책연구**, 20(1), 71-94.
- 이성식 (2004). 청소년들의 긴장, 부정적 감정의 경험과 사이버공간에서의 비행: 남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273-299.
- 이성식 (2014). 사이버비행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유대 및 차별접촉 환경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와 그 성별 차이. **청소년학연구**, 21(2), 279-298.
- 이성식, 전신현 (2011). 집단괴롭힘의 피해와 가해의 관계와 그 성별 차이. **피해자학연구**, 19(1), 207-227.
- 이성식, 전신현 (2012). 인터넷사용, 일산긴장, 비행의 관계: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23(3), 293-318.
- 전경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I. **한국심리학회**, 11(1), 65-76.
- 정원철, 아영아 (2006). 중학생의 따돌림 가해 및 피해경험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학연구**, 13(2), 89-116.
- 조윤오 (2012).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자학연구**, 20(1), 511-534.
- 조윤오 (2013). 사이버불링 피해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0), 117-142.
-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2014). **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Aceves, M. J., & Cookston, J. T. (2007). Violent victimization, aggression and parent-adolescent relations: Quality parenting as a buffer for violently victimized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 635-647.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 delinquency.

- Criminology*, 30, 47-87.
-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 319-361.
- Agnew, R. (2002). Experienced, vicarious, and anticipated strain: An exploratory study on physical victimization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19, 603-633.
- Agnew, R. (2006). *Pressured into crime: An overview of general strain theory*. Los Angeles: Roxbury.
- Agnew, R., & White, H. R. (1992).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0, 475-499.
- Alarid, L. F., Burton, V. S. Jr., & Cullen, F. T. (2000). Gender and crime among felony offenders: Assessing the generality of social control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7, 171-199.
- Baron, S. (2004). General strain, street youth, and crime: A Test of Agnew's revised strain theory. *Criminology*, 42, 457-483.
- Botchkovar, E. V., & Hughes, L. A. (2010). Strain and alcohol use in Russia: A gendered analysis. *Sociological Perspectives*, 53(3), 297-319.
- Broidy, L. M., & Agnew, R. (1997). Gender and crime: A general strai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 275-306.
- Broidy, L. M. (2001).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9, 9-35.
- Burton, V. S., Cullen, F. T., Evans, T. D., Alarid, L. E., & Dunaway, R. G. (1998). Gender, self-control and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123-147.
- Cheung, N. W. T., & Cheung, Y. W. (2010). Strain, self-control, and gender differences in delinquency among Chinese adolescents: Extending general strain theory. *Sociological Perspectives*, 53(3), 321-345.
- Cullen, F. T., Unnever, J. D., Hartman, J. L., Turner, M. G., & Agnew, R. (2008).

- Gender, bullying victimization and juvenile delinquency: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Victims and Offenders*, 3, 331-349.
- Daigle, L. E., Cullen, F. T., & Wright, J. P. (2007).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di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5(3), 254-286.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y, C., & Evans, M. (2006). Violent victimization and involvement in delinquency: Examining predictions from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 261-274.
- Heimer, K. (1996). Gender, interaction, and delinquency: Testing a theory of differential social contro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9, 39-61.
- Higgins, G. E., & Tewksbury, R. (2006). Sex and self-control theory: The measures and causal model may be different. *Youth & Society*, 37, 479-503.
- Hinduja, S., & Patchin, J. W. (2007).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35, 129-156.
- Jang, S. J., & Johnson, B. R. (2005). Gender, religiosity, and reactions to strain among african americans. *Sociological Quarterly*, 46, 323-357.
- Patchin, J. W., & Hinduja, S. (2011).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and Society*, 43(2), 727-751.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uritsen, J. L., Sampson, R. J., & Laub, J. H. (1991). Addressing the link between offending and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Criminology*, 29, 265-291.
- Manasse, M. E., & Ganem, N. M. (2009). Victimization as a cause of delinquency: The role of depression and gende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 371-378.
- Mazerolle, P., & Maahs, J. (2000). General strain and delinquency: An alternative examination of conditioning influences. *Justice Quarterly*, 17, 753-778.

- Mazerolle, P. (1998). Gender, general strain,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15, 65-91.
- Merton, R.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672-682.
- Moon, B., Blurton, D., & McKluskey, J. D. (2008). General strain theory and delinquency: Focusing on the influences of key strain characteristics on delinquency. *Crime and Delinquency*, 54, 582-613.
- Morash, M., & Moon, B. (2007).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strain on the delinquency of South Korean youth. *Youth and Society*, 38(3), 300-321.
- Piquero, N. L., & Sealock, M. D. (2000). Generalizing general strain theory: An examination of an offending population. *Justice Quarterly*, 17, 449-484.
- Piquero, N. L., & Sealock, M. D. (2004). Gender and general strain theory: A preliminary test of brody and agnew's gender/GST hypotheses. *Justice Quarterly*, 21, 125-159.
- Piquero, N. L., Gover, L., Macdonald, J., & Piquero, A. (2005).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s on delinquency: Does gender matters?. *Youth and Society*, 36, 251-275.
- Shekarkhar, Z., & Gibson, C. L. (2011). Gender, self-control, and offending behaviors among latino youth.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7(1), 63-80.
- Simons, R. L., Martin, G. M., & Stephen, M. A. (1980). Contemporary theories of deviance and female delinquency: An empirical test.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7, 42-57.
- Smith, D. A., & Paternoster, R. (1987). The gender gap in theories of deviance: Issues and evid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4(2), 140-172.
- Sutherland, E. H. (1947). *Criminology*. Philadelphia, PA: Lippincott.
- Tibbetts, S. G., & Herz, D. C. (1996).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of social control and rational choice. *Deviant Behavior*, 17, 183-208.

ABSTRACT

The effect of cyber victimization on cyber offending and gender differences in testing a general strain theory

Lee Jeonghwan*, Lee Seong-sik**

This study seeks to verify the effect of cyber victimization on cyber offending by Agnew's general strain theory and its gender difference. First, this study tests the effect of cyber victimization on cyber offending across genders. Second, it tests whether this effect is mediated by different emotions across genders. Third, it tests the interactional effects of cyber victimization with low self-control, delinquent peers, and belief on cyber offending. Using data taken from 763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the results indicate that cyber victimization has a direct effect on cyber offending in both males and females, even though the strain from parents, school, and peers was seen as having indirect positive effects on offending by different negative emotions across genders. In addition, it is revealed that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in the interactional effects of cyber victimization with other moderator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cyber victimization and belief have a significant interactional effect in males, while there are significant interactional effects of cyber victimization with low self-control and delinquent peers in females.

Key Words : cyber offending, cyber victimization, general strain theory,
gender difference

투고일 : 2014. 8. 20, 심사일 : 2014. 11. 3, 심사완료일 : 2014. 11. 10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Soongsil University